

잘 아는듯 몰랐던 나라 일본

갑작스럽게 주어진 글로벌 인스퍼레이션 기회에 설레던 일이 벌써 몇 달 전이다. 무사히 방문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수업에 과제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의 설렘이 잊혀지지 않는다. 때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날, 글로벌 인스퍼레이션 시작으로 나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방문 장소가 일본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아는 국가가 아닌가? 식도락의 천국, 컨텐츠 강국, 작지만 강한 섬나라가 내가 알고있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무인양품, 발뮤다, 넨도와 같은 디자인회사들이 탄생한 나라이며, 안도 다다오, 후카사와 나오토, 이세이 미야키와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의 고향이 일본이기도 했다. 사전 과제를 위해 일본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니 내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작은 우리의 이웃나라는 어떻게 디자인 강국이 되었을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까? 이런 궁금증을 잔뜩 안고 일주일간의 여정이 시작 되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전통

가는 길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처음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고 내리자 숨통이 막혀왔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섬나라인 일본의 여름날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습했다. 걸을 때마다 땀이 줄줄줄 멈추지 않았고 마치 내가 좁은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내로 나서자 여기저기 화려한 풍경에 시선을 뺏기고 넋을 놓게 되었다. 깨끗한 거리, 정돈된 건물 아기자기 들 어선 가게들과 거리를 채우는 사람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생각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사카에서 가정집의 모습이였다.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도중 마을 주택가를 거닐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집들이 아기자기하게 지어져 있어서 '역시 일본은 이런 아기자기함이 특징적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집집마다 작은 집의 미니어처들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에는 작은 신사가 꾸며져 있었다. 작은 신사들은 매일매일 닦고 가꾼 듯 잘 정돈되어 있었고 집 대문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어 지나가던 이 누구나 신사를 볼 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일본사람들은 돌 하나에, 흐르는 물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모시는 자세가 배어 있다고 한다. 선조들의 신사를 모시는 전통을 전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 삶 속에서도 마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작은 집들이었다. 집들 뿐만 아니라 길가에 있는 돌부처에도 하나하나 옷을 입혀줄 정도로 섬세하게 그들의 신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일본사람들이 사물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성에서 다양한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나 스토리텔링이 담긴 디자인들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개념이 현대에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연관 짓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서점, 오랜 문화가 꽃 피우는 공간

신사를 모시는 것 외에 뜻밖에도,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한번 일본사람들의 자세에 감탄하게 되었다. 서점은 옛날부터 지역마다 있었던 추억이 묻어나는 장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인터넷의 영향으로 지역 서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서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고유의 서점 공간을 유지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가쿠라자카에 위치한 카모매 서점을 방문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서점이었으나, 폐점할 위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서점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소통하는 장소로써 다시 활성화 시켰다. 방문한 서점의 모습은 카페 같기도, 갤러리 같기도 했다. 사람들이 한 권 구석에 기대서서 책에 푹 빠져 읽고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는 벽에 걸린 작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이런 서점의 모습이 더 꽃피운 곳이 다이칸야마에 위치한 츠타야 서점이었다. 처음에 들어설 때 여기가 서점인지 복합문화단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독특한 파사드 외관을 가진 건축물에, 책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과 공간이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으면서도 그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미니 티비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고,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 서점이라고 하길래 책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었다. 츠타야 역시 사라져가는 책방의 문화를 버리지않고 살려낸 공간이었다. 책 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것, 옛날감성이지만 현대적으로 다시 살려낸 것이었다. 삶 속에서 전통이 묻어나는 걸 넘어서 이를 다시 풀어내는 일본의 감각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 낸 것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잡게 된 나의 방향

일본에서 다녀온 후 어떤 디자이너가 되겠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방향을 잡게 된 것 같다. 처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디자인이 왜 다르고 일본은 왜 디자인 강국이 되었는지 궁금 했었고, 그 이유가 그들의 특별한 혹은 뛰어난 감성이나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생각지 못하게 깨닫게 된 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본의 디자인들이 일본의 문화나 정신을 본받고 삶 속에서 살려내는 감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좀더 문화적으로 디자인에 접근해 보는 것이다. 이번 인스퍼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이 그저 완벽한 논리나, 아름다운 조형미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그 삶 속에 베어있는 문화, 정신, 역사 등에 다가가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배경으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가치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것 같다.

그 어느때보다도 바빴던 여름날, 앞으로 어떤 디자이너로 성장해야 할지 의문점을 가졌던 시점에서 일주일간의 일본 여정은 나에게 미래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선물이었다.

